

시온 주보

제2533호
2024년 12월 8일(다해)

대림 제2주일
(인권주일, 사회 교리 주간)

그리스도의 세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Piero della Francesca, 1415-1492)
1437-1445, 판넬에 템페라, 167×116cm
내셔널 갤러리, 영국 런던



입당송 | 이사 30,19.30 참조

보라, 시온 백성아. 주님이 민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주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치리라.

제1독서 | 바룩 5,1-9

화답송 | 시편 126(125),1-2ㄱㄴ.2ㄷㄹ-3.4-5.6(◎ 3 참조)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 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겟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 필리 1,4-6.8-11

복음환호송 | 루카 3,4.6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복음 | 루카 3,1-6

영성체송 | 바룩 5,5; 4,36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회개



문종원 베드로 신부 | 주교좌 기도 사제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칩니다. 공관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마태 4,17)라고 선포하십니다. ‘회개하여라.’의 의미는 ‘삶을 쇠신하라.’, ‘마음과 정신을 완전히 바꾸어라!’, ‘죄에서 벗어나 하느님께로 향하라.’ 등을 뜻합니다.

‘회개’는 방탕한 짓을 그만두고 올바르게 행동하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품행이 단정하고, 행동에 어긋남이 없고, 책임감 있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기도도 많이 하는 바리사이들이 사실은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와 가장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엄격주의, 완벽주의, 율법주의, 공로 업적주의, 우월감, 중독증(권력, 명예, 폭력), 상호 의존적 관계, 세심증, 간헐적 폭발 장애(분노조절장애), 편집증에 사로잡힌 이중인격자들입니다. 이러한 위선자들 때문에 백성은 도탄에 빠졌고,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마르코복음에서 사도들은 일면 예수님의 외침을 이해한 것처럼 보입니다.(1,16-20 참조)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잘못 알아들었음을 복음의 후반부에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들은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생각에 십자가를 지고 종이 되라는 말씀에 귀를 막았습니다.

바리사이든 제자들이든 모두 진정한 회개, 즉 그들 자신을 분명히 대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

의 첫 번째 메시지는 공관 복음에서 ‘회개하여라.’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가 “묵고 계시는 데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자 와서 보라고 하셨습니다.(공동번역 요한 1,38)

이 같은 회개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여러 방법과 많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서 ~으로’라는 패턴(분열된 상태에서 온전함으로, 죄에서 은총으로, 정체 상태에서 새 삶으로의 변화)을 따르는데, 반드시 어떤 것을 ‘거쳐야만 합니다. 바로 사도의 회개 역시 눈이 멀고 하느님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단번에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과 우선순위들을 재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회개는 윤리 항목 몇 개를 고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마태 18,3) 어린이처럼 된다는 것은 하느님의 모상을 드러낸다는 것으로, 내재하시는 하느님의 모상을 회복시켜 한층 더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심리학에 따르면, 이 아이는 본래의 자기(self)입니다. 훌륭하고, 거룩하고, 강하고, 능력 있고, 기쁨이 가득하고, 현명하고, 희망에 차 있고, 그 자체가 선물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아이는 참된 자기, 내면의 아이, 성스러운 아이, 경이로운 아이, 지혜로운 아이로도 불립니다.



그리스도의 세례

비슷한 주제를 다룬 당대의 성화 가운데 이 작품은 수학적으로 가장 정교하게 그린 성화로 평가받습니다. 작가는 구성의 균형성, 단순한 형태 그리고 빛과 부드러운 색채를 통해 경건한 분위기를 작품에 불어 넣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회개의 세례와 죄의 용서를 위한 주님의 오심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임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 담당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화
해설

비워서 생기는 마음의 평화



장희진 목사 | 배우

30살이 막 되었을 무렵 산티아고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그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친한 언니들이 가자는 말에 가볍게 여행가는 마음으로 따라나섰을 뿐이었습니다. 침낭을 챙겨야 한다는 언니의 말에, 저는 7세 이하 어린이들이 쓰는 귀엽고 작고 예쁜 침낭을 챙겼습니다. 예쁜 등산복에 드라이기와 화장품도 잔뜩 챙겨서 배낭에 넣고 룰루랄라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순례 시작지인 생장으로 가기 위해 들른 파리 공항에서 이미 시련은 시작되었습니다. 호텔을 찾아 헤맨 지 1시간이 되었을 즈음, 외국어 하나도 못 하는데 여길 무슨 생각으로 왔나 하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공항조차 빠져나가지 못하고 빙빙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례가 시작되고 나서, 이 불안함은 기어코 후회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첫날부터 너무 힘들었습니다. 온갖 것을 다 채운 배낭은 너무 무거워 무릎이 부서질 것만 같았고, 무릎도 다 덮지 못하는 어린이용 침낭은 너무 아속했습니다. 게다가 숙소는 기대했던 것처럼 호텔 같은 시설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저녁이 되면 험하고 어두운 길을 여자 셋이 걷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후회는 점차 심해져, 이곳까지 저를 끌고 온 언니들이 미워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홀로 가고 있는 어느 신앙 깊은 순례자를 만났습니다. 그 뒤만 졸졸 따라가면서 무사히 그 험한 길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마음의 짐을 털기 위해 왔다고 고백하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걷다 보니,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순례에 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고백하는 저를 격려해 주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참으로 감동적이고 감사했습니다. ‘사실 나도 생각을 많이 하고 싶어서 왔는데, 막상 오니까 먹고 자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다른 것은 생각나지 않는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비우니 더 편안하다.’라고 말이지요. ‘비워서 생기는 마음의 평화! 주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 주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온갖 불필요한 물건을 배낭에 가득 채우고 와서 놀기만 바랐던 제게 주님은 다른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보니 공항에서는 버스를 타고 호텔까지 따라와서 길 안내를 해줬던 고마운 여학생을 만나게 해주셨었고, 어두운 저녁 길에서는 귀국 후에 신학교에 입학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려줄 만큼 신앙 깊은 청년을 만나게 해주셨었습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배려해 주고 좋은 말로 격려해 주며 침낭도 돌아가면서 덮어줬던 정말 고마운 언니들을 옆에 보내주셨습니다. 그제야 진정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항상 어려울 때마다 마음을 비우고 주님께 의지할 때, 당신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요.

한
것
목
상

피조물에 대한 지식은
하느님에 관한 오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젊음의 날에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코헬 12,1)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3장을 읽어봅시다. 하느님의 ‘지금’이자, 그리스도의 ‘지금’으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과연 성덕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더욱 위대한 것을 향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창조주이신 하느님 뜻에 맞갖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포함하여, 하느님의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떠올려 봅시다.
마음속에 어떤 기도가 올라오나요? 주님께 무엇을 청하고 싶으신가요?**



손민제 제노비오(동작동성당)

서울성모병원 본관 출입구에 있는 성모상 앞을 지날 때면 종종 그 앞에서 기도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만드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병마와 싸우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나약합니다.
영혼도, 육신도 나약하고 쉽게 쓰러집니다.
그러니 모든 질병과 아픔에서 지켜주소서.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시고,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고쳐주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을 돌보소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살리신 치유의 기적을 이 땅에
베푸소서.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이 기댈 곳이라고는 주님밖에 없는
수많은 아픈 이들을 돌보소서.
모든 병에서 벗어나 기쁨 가득 누리도록 자비를 베푸소서.”



최유진 스텔라(길음동성당)

“주님, 당신의 ‘지금’을 내어 맡기신
저희 청년들을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한밤을 해매는
다른 젊은이들에게 별빛을 밝혀주라고 부르셨으니,
당신이 보여주시는 표지인 참별들을 바라보며
당신과 함께하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소서.
당신의 사도로 부르신 우리 젊은이들이
시작한 일을 기뻐하고, 아낌없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우리 자신을 거듭 새롭게 하여
교회에 젊음의 아름다움을 가져다 줄 수 있게 하소서.
하느님, 당신께서 꾸시는 꿈을 저도 함께 꾸고 싶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하느님의 영원한 시간 속
한순간일 수 있도록, 제가 사는 일분일초가
당신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저의 매 순간이 당신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소서.
제가 하느님 당신의 ‘지금’임을 깨어 느끼게 하소서. 아멘.”

“생명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시어 여러분의 젊음이 가치를 지니기를 바라십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자신만의 특별함과 고유함**으로 세상에 여러분만이 가능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109항)

난파 후 받게 되는 두 번째 뗏목



방종우 야고보 신부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윤리신학 교수

박사 학위 공개 심사를 앞두고 가장 많이 신경 쓰였던 것은 다름 아닌 참석자들이었습니다. 내 이탈리아어가 어떻게 들릴까, 교수님들의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비웃음을 사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심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신없이 교수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긴장된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하려는데, 강의실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시선이 비로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광경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은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겠어.”라는 시선이었는데, 저를 바라보고 있던 시선은 “제발 잘 통과해야 할 텐데, 심사가 너무 간간하면 안 되는데...”라는 걱정과 애정이 가득한 시선이었습니다. 공개 심사가 끝나고 얼마나 반성했는지 모릅니다. 혼자 마음의 문을 닫고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을 의심한 제가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고해성사가 부담스럽습니다. 좁은 공간에 들어가 심판받는 기분이고, 고해 사제가 내가 누군지 알아채지는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해를 미루거나 형식적인 죄만 간단히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학창 시절 어리석었던 저의 모습처럼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는 커다란 착오입니다. 하느님께서 외아들까지 보내시어 인간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

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요한 3,16)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고해성사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23)

그렇다면 우리는, 고해가 죄를 심판받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위한 하느님의 ‘사랑의 성사’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가톨릭교회는 이 고해성사를, “은총을 잃어버리는 난파 후 받게 되는 두 번째 뗏목”이라고 정의합니다. 첫 번째 뗏목이 세례 성사라면 두 번째는 고해성사입니다. 즉 고해성사는 세례성사 후 하느님과 사랑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놓치지 않고 이 뗏목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성사를 통해 우리는 죄로 잃었던 하느님의 은총을 다시 받고 하느님과 화해하게 되며, 영원한 별(지옥 형벌)을 면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나약하며 종종 길을 잃지만 이렇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죄를 지었을 경우, 혹은 분명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보다 적극적인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느님께서는 잃어버린 어린양을 되찾은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아름다우신 하느님, 함께하시는 하느님

- 세계주교시노드 봉사 체험기



정태영 베드로 | 시노드 커뮤니케이션팀 봉사자

서울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던 저는 지난 10월 믿기 힘들 만큼 감사한 체험을 했습니다. 바티칸에서 한 달 간 열린 제16차 2회기 세계주교시노드에 영상 제작 봉사자로 참여하는 체험이었습니다. 밀도 높은 신앙 체험이었던 만큼 그 의미를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중이지만, 그 와중에도 분명하게 느끼고 깨달은 것이 있어 이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은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름다움’입니다. 바티칸에서 10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했던 생각 중 하나는 ‘아름답다.’였습니다. 비단 성당과 성화만을 두고 느낀 바는 아니었습니다.(물론 이들도 너무나 아름다웠지만요.) 제게 특히 인상 깊었던 순간은, 바오로 6세 알현실에 마련된 회의장에서 시노드 대의원들이 성령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귀 기울이며 대화하는 모습, 순교자 광장에서 교황님과 시노드 참가자들이 함께 교회 일치를 위해 촛불을 밝히고 기도하던 모습, 한 달간 함께 일하던 시노드 사무국 커뮤니케이션 팀 동료들이 마지막 날 눈물로 이별하며 서로를 위한 기도를 약속하던 모습 등이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 속에서 하느님께서 ‘아름다움’으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깊이 느낀 것은 모든 곳에서 누구나와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보편성이었습니다. 제가 한 달간 머물던 곳은 바티칸 광장 바로 옆에 있는 신학교 내 기숙사였습니다. 그곳에 함께 머물던 대의원과 봉사자 30여 명은 회의가 끝난 후 매일 저녁이면 삼삼오오 둘러앉아 각자 하루는 어땠는지, 신앙의 여정은 어

땠는지,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가 마주하고 있는 과제들은 무엇인지 등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하느님께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전 세계 곳곳의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가장 좋았던 순간이 언제인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이 내려다보이는 숙소 주변의 풍경, 로마 곳곳의 성지순례 등 그 놀라운 순간들에도 불구하고, 제게 떠오른 것은 하느님께서 전해주시는 사랑을 생생히 느끼며 머무른 기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랍게도 그 사랑의 체험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서울의 제방안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티칸에서 저와 함께 계셨던 하느님은 지금, 이곳에서도 함께해주고 계신다는 확신이 듭니다.

시노드 기간 중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의 말씀이 담긴 영상을 우리 교구 SNS 채널에 올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주교님께서 “하느님을 향해 함께 걷는 길, 시노드 여정을 모두 함께 살아가자.”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힘주어 말씀하시던 대주교님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교황님께서도, 그리고 전 세계 보편 교회의 마음이 담긴 세계주교시노드의 최종문서도 같은 목소리로 저를 초대합니다. 함께하는 여정, 시노드의 삶을 앞으로도 힘차게, 기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초월적 존재



신승환 스테파노 |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인간은 감각기관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는 지각없이 세상을 알아볼 수도 없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가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각하는 세계와 자연은 물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모양을 갖추고 있는 물질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런 물질적인 것만이 세상의 전부인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각할 수 없지만 분명히 실재하는 것들은 어떻게 있는 것일까요. 사랑이나 우정, 아름다움이나 믿음 등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영혼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뛰어난 현대 과학이라도 실제로 검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두는 현실적인 세계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실재로 자리합니다. 이런 세계를 감지하고 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존재의 독특함 때문입니다. 이것을 철학에서는 초월이라고 부릅니다.

초월이란 얼핏 매우 어려운 말인 듯하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 삶은 이런 영역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마주합니다. 물질세계와 현실의 한계를 넘어 그 이상의 것을 향해 가려는 마음은 우리의 본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이것을 이해하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신적인 영역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랑이나 믿음 같은 비물질적 실재들은 손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그런 세계는 분명 우리 삶 안에 가득차 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그 이상의 세계에 대해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그 이상의 것'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지닐 수 있을 때 그는 물질의 영역을 넘어 초월로 나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인간의 초월적 특성을 넓은 의미에서 영성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철학적 영성은 인간이 그 이상의 세계를 향해 가는 존재이며,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밝혀내려 합니다. 영혼을 뜻하는 고대 유럽어들은 모두 생명의 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영성은 생명의 원천과 인간의 인간다움은 물론, 인간이 지닌 근본적인 초월적 특성을 지성으로 이해하고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초월적이고 영성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모두를 넘어 그 이상의 세계로 향해가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낭만주의 철학자 노발리스의 말처럼 인간은 고향을 향한 그리움, 향수를 지닌 존재입니다.

지나치게 물질적 세계에 묶여있는 현대 사회 안에서 이를 넘어서려면 초월적 특성에 대해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실증적 문화에 갇힌 현대인은 그 이상의 세계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서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내적으로도 인간은 자신의 근본적인 유한성과 우리 안에 가득한 모순 때문에 끊임없이 실존적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모두를 감내하면서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지닌 초월성을 직시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자신의 초월적 특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모든 한계를 넘어 고향을 찾아갈 수 있을테지요. 우리가 초월적 존재이며 이를 이해하고 말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인간일 수 없습니다. 고향을 상기하고 그리워하는 인간의 특성이 이 초월을 향한 길에서 남김없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12월 8일)은 대림 제2주일로 제43회 '인권 주일'이며 제14회 '사회 교리 주간(12월 8일~14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인간 존엄성을 기억하며, 1982년부터 대림 제2주일을 인권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대림 제2주일을 사회 교리 주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서울주보 홈페이지 교회 메시지 항목에서 담화문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영상: <https://bit.ly/인권사회교리교육영상> (CBCK 제공)

12월 15일(대림 제3주일)은 '자선 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2027 서울 WYD 홈페이지(<https://wydseoul.org>) 개설

세계청년대회 역사와 준비기도문 등을 비롯한 각종 WYD 관련 정보는 물론, 묵주기도 10억단 바치기 운동에 따른 봉헌 현황도 조회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교구 사목평의회 위원 임명

위원장: 정순택 대주교

부위원장: 구요비 주교

위원: 유경춘 주교, 이정상 주교, 정영진 신부, 김연범 신부, 이재경 신부, 윤성호 신부, 이길재 신부, 김승현 신부, 최연숙 수녀, 임명자 수녀, 김상윤 신부, 유명옥 수녀, 안재홍, 석남연, 김정재, 조희진, 김진택, 임주빈, 김정영, 정지연, 정한결, 권민서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7년 12월 12일 방영석 요셉 신부(29세)
- 1972년 12월 10일 김유룡 필립보 신부(80세)
- 1994년 12월 14일 구전회 바르톨로메오 신부(73세)

서울주보 게재 신청 안내

서울주보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교구청 알림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김연행 개인전: 1전시실

글아갤리아카데미 회원전: 2전시실

김태희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12월4일(수)~12일(목)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생 모집

위기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육,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가톨릭회관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명동대성당 영성교육 프로그램

오르간	매주(목) 또는 (토) 10시~16시(개인 강습 + 연습)	15만원 (매월)	010-8508-9384 담당 강사(문자문의요망)
전례 꽃꽂이	매주(금) 10시~13시(교구반) 매주(금) 13시~14시30분(기초반)	7만5천원 (0개월/재료비 별도)	010-5302-4593 담당 강사
수어	매주(목) 또는 (금) 19시~21시	12만5천원 (6개월)	02)995-7394 에파타성당

2024 미사를 통한 치유 특강

대상: 누구나(회비 없음, 강의자료드림) / 강의: 조창수 신부

내용: 가톨릭 미사 전례에 대한 해설과 묵상

때, 곳: 12월12일(목) 13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문의: 010-8889-5425(문자) 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된 영혼을 위한 기도과 미사)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때: 12월10일 13시30분~16시30분 매월 두번째 (화)

곳: 서울대교구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발달장애인 첫영성체 교육 담당자 연수

때, 곳: 2025년 1월5일(일) 10시~17시, 영성센터

(명동) / 회비: 5만원 (교재, 식사 포함)

접수: 이메일(cafema@cafema.or.kr) / 양식-홈페이지

문의: 02)727-2107 청소년국 장애인신앙교육부

제69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때, 곳: 12월19일(목) 11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명동)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 문의: 02)727-2278, 2283

주례: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1446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12월10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복녘본당': 함흥교구 북청 본당

문의: 02)727-2420

2025년도 총구역장 연수

대상: 남성총구역장, 여성총구역장

때, 곳: 2025년 1월4일(토) 11시~15시, 주교좌 명동

대성당 / 회비: 2만원(12월26일 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3 사목국 교육지원팀

가톨릭 인성교육 봉사자 모집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인성교육' 봉사자를 학교사목부에서 모집합니다

대상: 건진성사 받은 신자, 만 20세~60세

(2005~1965년생) / 곳: 가톨릭청소년회관(역삼동)

자격교육: 2025년 1월7일~9일, 14일~16일(2주간, 총 6일)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홈페이지에 서류양식)

접수기간: 11월26일~2025년 1월3일

회비: 10만원(30시간 특강, 식대, 간식비 포함)

문의(기타): 02)553-7320(일, 월 휴무) 학교사목부

사무실 / 홈페이지(www.kyccs.or.kr) 참조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이효준 신부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12월21일(토) 14시~17시	수녀원(경기도 군포)	010-4889-1830
작은예수수도회	수시	수도원(전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010-8920-2111
천주교서울교구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수시	전화 상담 후 결정	010-9199-4995

인준단체 알림

모임

수도자와 함께하는 성탄전례 피정

때, 곳: 12월23일(월)~25일(수), 베네딕도 영성관(주최)
회비: 20만원 / 010-7103-3425 툇팅포교베네딕도수녀회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지순례

때, 곳: 2025년 4월24일~5월5일, 성모발현지
회비: 520만원 / 문의: 010-7374-3217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9518-1601

때: 매주(금) 19시~21시45분 / 최황진 신부(수원교구)
곳: 역삼동성당 경화당(주차 가능) / 강의, 안수

노들담수녀회 청년 송년 피정

대상: 35세 이하 미혼 청년 15명 / 회비: 8만원
때, 곳: 12월27일(금) 20시~29일(일) 15시, 서울
노들담 교육관 / 문의: 010-3930-6730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12월10일 김재덕 신부 12월17일 성시간·연도·위령미사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곳: 전철 1·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 010-6890-7223

연말 피정(2박3일)	12월20일~22일
영신수련 8일 피정(9박10일)	2025년 1월3일~12일

예수회 생활기도수련원 피정·강좌

곳: 강남구 삼성동 / 문의: 010-3845-3045

기도따라하기 하루 피정	12월18일 / 회비: 3만원	정규한 신부
'내 삶의 디딤돌 잠심' 10주 강좌	12월6일 개강, 매주(금) 13시30분~16시	

성 베네딕도 왜관 수도원 전례·성지순례

문의: 010-3807-1784 라이스돌(왜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국내	2025년 2월15일~17일(대구 17곳), 3월1일~4일(전주 11곳·광주 4곳), 3월15일~18일(부산 8곳·마산 6곳), 4월23일~27일·7월5일~9일(울릉도·독도) / 출발: 가톨릭회관 후문
동유럽	5월3일~18일, 체코·폴란드·메주고리에

예수고난회 서울 명성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2025년 1월3일 10시~15시30분
대림 피정	12월10일·12월17일 매주(화) 10시~16시
대침묵 피정(요한묵시록)	12월11일~14일(3박4일)
송년 피정	12월31일~1월1일(1박2일)
다네이영성수련(대침묵)	1월10일~12일(2박3일)
단체 피정(자체·위탁) / 개인 피정 가능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6512·5535 전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밤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오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4시30분~19시30분	미사: 18시
청년(루하)기도회	(금)	19시30분~21시30분	미사: 20시30분

골롬반 청년 대림 피정(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대상: 23세~34세 신자 / 문의: 010-5033-9302
때, 곳: 12월14일(토) 10시~17시, 성골롬반외방선
교수녀회 / 회비: 1만원(현장 납부, 점심식사 포함)
접수: bit.ly/골롬반청년피정12

두루미 생명 평화 여행

때: 일일 12월14일(토)·2025년 1월11일(토), 1박2일
1월25일(토)~26일(일) / 대상: 누구나(선착순 40명)
곳: 철원-연천-파주 / 출발: 민족화해센터
회비: 일일 5만원, 1박2일 10만원(성인)·7만원(청소년)
문의(접수): 031)941-2766(www.pu2046.kr) 민족화해센터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주제: 부귀와 공명과 세락을 경천이 여기면 하
느님을 얻으리라 / 회비: 1만원
지도: 정종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 찬양: 고영민
때, 곳: 매일 둘째주(토) 12월14일 14시~18시, 구
산성지 /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때: 연말연시 12월30일~2025년 1월2일(한라산·해님
이·해돋이), 한라산 눈꽃산행 1월17일~19일·1월
23일~25일·2월8일~10일·2월14일~16일·2월22일
~24일,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3월1일~4일·3월9
일~12일, 생태순례 3월15일~17일·3월22일~24일
·3월28일~30일 / 문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연말연시 12월29일~2025년 1월1일(한라산·해
님·해돋이), 한라산 포함 1월11일~13일·1월16
일~18일·1월20일~22일·1월24일~26일·2월7일
~9일·2월15일~17일(제주T/S), 2월21일~23일·2
월25일~27일·3월1일~3일(자연 순례)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교육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9개월에 읽는 신약성경(Zoom)

때: 2025년 3월~11월 (일) 16시~18시 / 회비: 12만원씩 3회
문의: 010-4598-6912 작은형제회 김성태 신부(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라-전진상 영성센터 특강

주제: 그리스도 영성의 올바른 이해 / www.jxcen.or.kr
강사: 박재찬 신부 / 문의: 02)726-0700 전진상영성센터
때, 곳: 12월19일(목) 10시~13시, 전진상 영성센터(명동)

ECYD 청소년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그리스도 레지오회)

대상: 초5~6학년 남학생 / 문의: 010-6865-3765
때: 2025년 2월~5월 격주(토) 총8회 모임
카카오톡채널: 그리스도레지오회

바오로딸 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과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 2025년 1월31일까지 접수
원서: https://uus.pauline.or.kr
방법: 우편과 이력서(동영상 강의) 성경공부
문의: 02)944-0819~23, 010-5584-8945

선교아카데미 제14기 교육생 모집

대상: 해외선교 및 선교에 관심이 있는 평신도,
수도자, 사제 / 회비: 80만원(식대 포함)
때, 곳: 2025년 3월6일~8월28일 매주(목), 한국외방
선교회(주최) 본부(성북동) / 문의: 02)3673-2528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생활성가 반주법 강좌

때, 곳: 목요일반 매주(목) 19시~21시·금요일반 매주(금)
10시~1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7층 강의실
회비: 20만원(8회 기준) / 유튜브: 한샘생활성가
문의(접수): 010-7244-1312 (강사에게 직접 연락)

2024년 행복한 겨울캠프 접수(양업고등학교)

대상: 현재 중학교 1·2학년 / 문의: 043)260-5076
때, 곳: 2025년 1월3일~5일(2박3일), 양업고등학교
접수: 12월17일(화) 오전 10시, 홈페이지 선착순
회비: 15만원 / 접수 확정 문자 후 이체

예수회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 문의: 02)3276-7799

일상생활 속의 영신수련(영성·교리·신학 통합강
좌와 영적수련) / 2025년 1월3일까지 접수
때, 곳: 화요일오후반 14시~16시·목요일저녁반 19시
~21시, 비대면 온라인(8주 과정) / 담당: 권효섭 신부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브런치 작가 양성과정 1기 모집

때, 곳: 2025년 1월2일~2월27일 매주(목) 10시
~12시(8주 과정), 서강대학교 김대건관 강의실
회비: 30만원(교재비 별도) / 문의: 02)705-8718
홈페이지: https://sccc.sogang.ac.kr

2025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원서접수: 2025년 2월14일(금)까지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학교 밖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모집

수업참여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수업내용: 검정고시·수능, 기타, 원어민영어회
화, 토론·글쓰기, 사진, 바리스타, 코딩 등
봉사자 모집: 검정고시(전과목), 수능학습지도, 기타
지도 가능한 분 / 문의: 02)382-5652 청소년문화공간JU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

2025년 1월 개강 / 현장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수)	구약으로 만나는 하느님의 여러 얼굴들	김민 신부
(목)	영성과 심리의 통합 세번째 길	최지원 수녀
(금)	명화로 만나는 그리스도교 영성	박혜원 강사

제25회 가톨릭평화방송 겨울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cpbccamp.com)

미국	2025년 1월15일~2월4일(3주) / UCLA·UC버클 리·스탠포드 재학생 간담회, 유니버설, 디즈니 랜드, 그랜드캐년,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사이판	2025년 1월11일~2월4일(4주) / 가톨릭국제학교 정규 수업, 마나기하섬, 워터파크 다양한 현지 액티비티

평신도를 위한 기도훈련-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대면)

주제: 일상 삶에서 하느님 만나기
대상: 성서를 통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신자
때, 곳: 2025년 1월8일부터 매주(수) 10시30분~19시40분(6주), 한국CLC 강의실
1월2일까지 접수 / 문의: 02)333-9898 한국CLC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2025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교황청 승인 교회법학 전문가 양성 기관
원서접수: 전기 2차 2025년 1월6일(월)~23일(목) 17시
모집과정: 제1과정(예비과정) 철학·신학·62학점
(수업료 학기당 100만원), 제2과정(석사과정) 교회법·88학점(수업료의 50% 감면 장학금 혜택)
문의: 02)2164-6521(<https://gscl.catholic.ac.kr/gscl/index.do>)

모집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 문의: 010-8735-4889

국악서가 한길합창단 단원 모집

때, 곳: 매주(금) 19시, 혜화동 / 문의: 010-8932-0910
지도: 강수근 신부 / 오디션곡: 가톨릭성가 중 1곡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식당 자원봉사자 모집

때, 곳: 평일 10시~13시(요일 협의), 센터 B1
문의(접수): 070-7209-2938 전화 및 온라인 접수

아퀴나스합창단 단원 모집

1967년 창단된 아퀴나스합창단이 88회 정기공연(구노의 오라토리오 '구원, Redemption', 2025년 4월)을 함께 할 단원(55세 이하, 전공불문)을 찾습니다
오디션 문의: 010-8000-3194 추무

명동대성당 가톨릭여성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성가를 사랑하고 성음악에 관심있는 여성 가톨릭 신자 / 오디션준비: 자유곡 또는 가톨릭성가 중 1곡
오디션: 12월15일(일) 낮 12시30분, 명동대성당 문화관 3층 명례방 / 문의: 010-2230-0138 단장

미사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12월19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와 성모신심미사

때: 둘째주(토) 12월14일 10시~13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02)727-2489

12지구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미사와 주일학교

대상: 초등~성인기 발달장애인(지적 장애·자폐성 장애)
때, 곳: (일) 15시(교리)·16시(미사), 잠원동성당
문의: 010-9942-2590 (문자) 엔젤스주일학교(잠원동성당)

안내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심리상담

문의(예약): 010-3173-2665 최영민 신부(예수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문의·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ca.or.kr)

제주도 관광 / 문의: 010-4566-6476

제주운전기사회에서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익산 성글라라스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도와주시길 청합니다 /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 봉헌식 갱신식 미사

때, 곳: 12월9일(월) 9시30분~낮 12시, 가톨릭회관 7층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주최: 서울대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까리마스 알코올회복센터

알코올 의존자 당사자 주·야간 교육, 가족교육 운영
자녀교육: 고통받고 있는 성인자녀를 위한 교육·매주(수) 19시 / 문의: 02)521-2364
회복을 위해 까리마스알코올회복센터와 함께해요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2024년 성탄 평화마켓

청년 작가들이 만든 핸드메이드 성물을 만날 수 있는 평화마켓에 초대합니다 판매금액의 일부는 청소년들에게 기부됩니다 / 문의: 02)338-7832
때, 곳: 12월14일(토) 12시~18시,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주최, 전철 2호선 홍대입구역) 1층 카페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깃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바보의나눔 유튜브채널 '러브온탑'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이 스타들의 선한 영향력을 담은 '답 쌓기 챌린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 매주 새로운 스타들의 러브온탑,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유튜브 검색창에 '@러브온탑'을 입력하세요
(www.youtube.com/@러브온탑) / 협찬 문의: 02)727-2507(fund@babo.or.kr) 바보의나눔 모금홍보팀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일 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 심리치료	개인(우울·공황·불안·강박·트라우마·해리 등), 가족·부부갈등, 종합심리검사
때	매일 첫째·셋째주(월) 19시30분~21시30분

불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 IPC

대상: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
곳: 선릉 / 문의: 010-9139-193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유관단체 알림

폐제노래 기도모임·주일 미사 / 문의: 02)744-0840

대상: 하느님을 갈망하는 어른·청소년·청년
때, 곳: 매월 세번째(토) 12월21일·2025년 1월18일·2월15일·3월15일·4월19일 15시45분~17시45분, 햇살사목센터(주최, 혜화로2길20) 성당

직원모집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사제식당 조리원(계약직) 모집

분야: 사제식당 조리원(계약직) / 문의: 02)740-9707, 8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 모집공고 참조

요셉의원(서울 영등포) 직원 모집

분야: 방문진료 전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 공지사항 참조, 지원서 접수 / 문의: 02)2634-1760

가톨릭청소년이동쉼터 서울아지트 직원 모집

분야: 후원자 회계 담당 / 이메일: ajit@ajit.or.kr
후원자 회계 및 응대 관련 경력 우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www.ajit.or.kr>) 참조

목동성당 방호원(계약직) 1명 모집 / 문의: 02)2643-2212

대상: 세례받은 분(자격증 소지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 12월15일(토)까지 이메일(suhhee@seoul.catholic.kr) 및 방문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명동대성당 사무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PC 가능한 계약직 사무원 1명(정규직으로는 2년 근속 후 전환 가능, 회계업무 가능한 분 우대)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합격자 개별 연락)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타교구는 주임신부님 추천서) / 12월11일(수) 18시까지 사무실 방문·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및 이메일(mdsdcacatholic.or.kr) 접수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 직원 상시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나이제한 없음) / 이메일 문의
업무: 주방 근무(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 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사무실에 신청) /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본 전형은 접수 마감시한이 따로 없는 연내 상시 접수이며, 채용계획이 있을 시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전형 진행 / 합격자 발표: 서류 합격(면접일정 통보), 면접 합격은 대상자에 한해서만 개별 연락

게재된
시간 검색

신간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

김상인 엮음
위즈앤비즈 | 612쪽 | 2만5천원
문의: 031)986-7141

고(故) 차동엽 신부의 주일 복음 묵상 시리즈의 마지막 권이 나왔다. 2005년부터 선종 직전까지 발표했던 차 신부의 다해 전례력 주일 묵상을 모은 이 책은 우리 마음에 복음의 참맛을 느끼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복음 말씀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해 줄 것이다.



신간

제가 주님을 뵈었습니다

김정은 외 지음
도서출판동연 | 272쪽 | 1만7천원
문의: 02)335-2630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를 만난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다양한 측면에서 다채로운 해석이 이루어진 인물이다. 이 책은 성경, 교부들의 문헌, 현대 가톨릭교회의 문헌, 그림, 여성 인권, 사도성 등 여러 초점으로 마리아 막달레나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신간

요한복음
말씀여행

정월기, 전원 지음
한국통합사목센터 | 156쪽 | 1만원
문의: 02)762-1194

마태오·마르코·루카 복음서에 이어 요한 복음서의 발간으로 4복음서의 말씀여행 시리즈가 완간되었다. 이 책은 신자들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며 주님께서 선사하시는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하는 동시에, 소공동체 모임에 더 큰 활력을 주고 신자들이 말씀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신간

영혼의 성 해설

한영만 지음
기쁜소식 | 460쪽 | 2만5천원
문의: 02)762-1194

이 책은 성녀 데레사의 《영혼의 성》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며 각 장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하고, 주요 내용과 관련된 사실들을 연계 자료와 함께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또한 주요 영성 개념들을 쉽게 해설함으로써 하느님을 향한 영적 여정에 진일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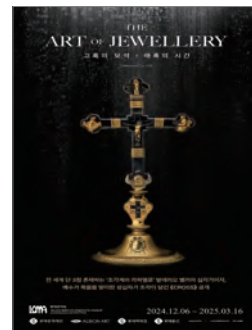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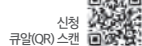


연극

네 번째
동방박사

때: 12월 24일(화) 16시·19시, 12월 25일(수) 16시
곳: 명동대성당 파밀리아채플 / 전석 무료
예약링크: <https://naver.me/F42DhO26>
문의: 02)3789-7702

연극 <네 번째 동방박사>가 12월 24일·25일, 명동대성당 내 파밀리아채플에서 공연된다. '네 번째 동방박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명의 동방박사 이야기가 아닌 그들과 뜻을 같이 했던 '또 다른 동방박사'의 이야기다. 아기에 수님을 찾아 경배한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하늘에 나타난 별을 보고 길을 떠났으나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한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가 펼쳐진다.



전시

The Art of Jewellery:
고혹의 보석, 매혹의 시간

때: 12월 6일(금)~2025년 3월 16일(주일)
곳: 롯데뮤지엄 / 문의: 1544-7744
입장료: 성인 2만원 청소년 1만6천원 어린이 1만2천원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30% 할인

전시 'The Art of Jewellery : 고혹의 보석, 매혹의 시간'이 2025년 3월 16일까지 롯데뮤지엄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얼리 컬렉션이라고 불리는 '카즈미 아리카와 주얼리 컬렉션'의 최대 규모 전시이다. 전시의 공간 컨셉은 'Dark Ambience(어두운 분위기)'로 전체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주얼리 작품에 몰입할 수 있게 연출했다.